

# 이국적 패션 이미지 지각에 미치는 성별과 교육 효과

정 유 진\* · 정 인 희<sup>+</sup> · 최 수 현\*\*

금오공과대학교 섬유패션공학과 석사\* · 금오공과대학교 신소재시스템공학부 부교수<sup>+</sup>  
·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시간강사\*\*

## Effects of Gender and Education on the Perception of the Exotic Fashion Image

Yoo-Jene Jeong\* · Ihn-Hee Chung<sup>+</sup> · Soo-Hyun Choi\*\*

Master, Dept. of Textile and Fashion Engineering, Kumoh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sup>\*</sup>  
Associate Professor, School of Advanced Materials and Systems Engineering, Kumoh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sup>+</sup>  
Instructor,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Seoul National University\*\*  
(투고일: 2008. 8. 20, 심사(수정)일: 2008. 12. 23, 게재확정일: 2008. 12. 31)

### ABSTRACT

Exoticism, by definition, is 'the charm of the unfamiliar', usually because of associations with a distant country. In the western-centric world, exoticism implies non-western or oriental styl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Koreans' perception of "Exoticism", and to compare the perception of exotic fashion image according to gender and education differences.

Empirical study was composed of two parts focusing on gender and education effects respectively. For the first part, data were collected by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distributed to 280 respondents at 2 universities and 2 high schools during August and September 2005. The sample was consisted of 140 male and 140 female. A measurement, including 24 image adjectives to evaluate 16 fashion stimuli, was developed.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s, t-test, and MDS.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perception of exotic fashion image according to gender. Both gender groups perceived exotic image as western image and non-exotic image as oriental image. Thus it could be said that Koreans perceive western-based fashion as foreign and exotic. This finding implies the relativity of "Exoticism."

In the second part, the measurement and the analysis methods were the same with the first part. The respondents were consisted of 70 fashion majored female students and 70 non-fashion majored female students. There was considerable difference between fashion and non-fashion major groups in their perception of exotic fashion image. Whereas non-fashion major group perceived exotic image as western image and non-exotic image as oriental image, fashion major group perceived exotic image as both western and oriental image. This result suggested that fashion major group have western-centered conception as well as general perception character of Korean.

Key words: exotic fashion(이국적 패션), exoticism(이국주의), clothing image(의복 이미지), effect of education(교육 효과)

## I. 서론

패션에서의 글로벌리즘(globalism)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세계의 패션경향이 다양화, 개성화된 1980년대와 전자, 통신, 교통수단의 발달 및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 등으로 문화적 다양성과 세계화가 강조된 1990년대를 지나면서 대두되었다. 21세기 초의 패션경향은 절충주의, 다원주의, 자연주의, 퓨전 등을 바탕으로 기존의 이질적인 문화 또는 방식들을 융합하여 새로운 패션을 창출하는 것이다. 현대사회에서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어 다른 문화의 모방과 수용은 예전보다 훨씬 쉽고 활발해졌으며, 그로부터 창출해내는 새로운 유행은 이국주의(exoticism)의 원천이 된다.

패션에서의 이국주의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어, 유희적이거나 물신적(物神的)인 성질을 일컫기도 하고 외래적이거나 희귀한 특징을 가리키기도 한다<sup>1)</sup>. 한국적 정서에서는 후자의 의미가 더 친숙할 것이다. 즉,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물, 예술작품 또는 패션에서 낯설고 생소한 느낌을 받을 때 '이국적(exotic)'이라고 한다. 그것은 '다름'에 대한 인식이므로, 이국주의란 바로 '다름'을 인식할 때 생겨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국적'이라는 것은 '자기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 특징적인'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sup>2)</sup>.

서구 패션에서 '이국적'이란 용어는 이전이나 현재 테크닉과 현저히 '다르다'고 코드화된 '새로운 룩'을 일컫는 데 사용되므로, 반드시 비서구 문화권의 특징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비서구 문화와 관련된 테크닉을 의미한다<sup>3)</sup>. 김수경<sup>4)</sup>도 서구 문화에서 이국취향<sup>5)</sup>은 비서양적인 것에 대한 흥미로 고대 로마시대부터 출현했다고 하였다. 이처럼 서구 중심의 패션에서는 '이국적'이라는 의미가 서구 문화와는 다른 비서구 문화를 일컬어 왔으므로, 그와는 다른 맥락에 처한 오늘날의 한국인들이 '이국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어떤 인식을 하고 있을가를 알아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현대복식이란 일반적으로 그 사용범위가 전 세계적인 서양의상으로, 세계 어느 지역에서나 남자들의

신사복, 여자들의 양장, 그 외의 다양한 유니폼에 이르기까지 서양의상이 착용되고 있으며, 유행에 있어서도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그리고 미국이 4대 패션국가로서 그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sup>6)</sup>. 이와 같이 현대패션은 서구 중심으로 편성되어 왔고, 그 결과 오늘날 많은 국가에서 서구적 보편성이 글로벌 기준으로 침투해 있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이국적' 의미는 한국 고유의 특징과 다른 것을 의미할 뿐 아니라 서구 문화와 다른 것을 의미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들이 이국적이라고 생각하는 이미지를 실증적 연구에 근거해 밝혀 보고자 한다. 한국은 아시아의 많은 나라 중에서도 서구 문물에 대한 개방도가 높은 편이며, 특히 의생활에서는 거의 서구와 같은 수준의 유행주기를 따르고 있다. 이런 한국인들의 이국적 패션 이미지 지각이 사전적 정의에서처럼 '자기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 특징적인 것' 즉 '한국적이지 않은 것'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지 아니면 서구의 관점에 동화되어 '비서구적인 것'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는 향후 여러 국가의 이미지 평가 비교 연구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성별과 교육이 이국적 패션 이미지 지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패션에 관한 관심이 더 높고 서구 패션경향에도 더 많이 노출되고 있으므로, 여성이 서구적 관점으로 이국적 이미지를 지각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패션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의 경우 그렇지 못한 사람과 달리 서구적 관점에 동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 II. 패션과 이국적 이미지

정인희, 이은영<sup>7)</sup>은 유행 연구를 분석한 후 유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개념들 중 하나로 새로움의 추구를 꼽았다. 이처럼 이미 익숙해져서 싫증나는 것을 낯설고 새로운 것이 대체하는 것이 패션 시스템의 본질이라면, 이국주의야말로 패션 시스템을 구성하는 중요한 코드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크레이크<sup>8)</sup>도 패션 테크닉은 의도된 위반을 시각적으로 표현함으로

써 사회적 교류의 규칙을 조정하는 완벽한 도구이며, 이러한 관계에서 이국주의가 출현한다고 하였다.

현대패션에서의 이국주의는 창조적 한계 특히 서양복식의 한계를 느끼는 디자이너들에게 새로운 모티프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해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국적 스타일의 룩은 현대패션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트렌드로 자리매김해왔다. 아방가르드의 이국주의로 프랑스 패션계에 발을 들여 놓은 이세이 미야케, 요지 야마모토, 레이 카와쿠보 등의 일본 디자이너도 1980년대에 유럽이 가지고 있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창의성을 도입하여 유럽인들의 시야를 넓힌 것으로 높이 평가받는다<sup>9)</sup>.

패션에서의 이국주의는 일반적으로 세계 여러 나라의 민속복식과 민족 고유의 염색, 직물, 패턴, 자수 등에서 영감을 얻어 디자인한 민족적(ethnic) 이미지를 의미하며 또한 그 범위에는 아시아 민족의 복식을 가리키는 오리엔탈 이미지와 열대지방 민속의상의 트로피컬(tropical) 이미지, 원시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 프리미티브(primitive) 이미지의 복식이 포함된다<sup>10)</sup>. 권유진<sup>11)</sup>도 동양적 요소가 도입된 혹은 재현된 서양복식을 나타내는 용어로 오리엔탈룩(Oriental Look), 동방풍,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 이국취향(Exoticism), 민족풍(Ethnic Look) 등의 용어가 혼란스럽게 사용되고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패션에서의 이국적 이미지는 서구 중심의 시각에서 '동양적(oriental)', '민족적(ethnic)'<sup>12)</sup>, 그리고 '원시적(primitive)' 이미지 등과 때로는 일치되게, 때로는 약간의 차별성을 가지며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국적인 것은 바로 동양적인 것이고 민족적인 것이며 때로 원시적인 것이라는 심상을 반영한다.

패션에서의 이국적 이미지는 새로운 유행을 창출하는 동인(動因)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새로운 유행에 대한 가치가 높아가는 현 시점에서 소비자들의 이국적 이미지 지각 구조를 알아보는 것은 중요하다. 또한 이국적 이미지와 유사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여러 이미지들과 이국적 이미지의 관계를 확인해보는 일도 이미지 연구에서는 가치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국적 패션 이미지가 소비자들

에게 어떻게 지각되고 있는지, 즉 이국적 이미지라고 할 때 실제 소비자들은 어떤 연상을 하는지, 이국적 이미지는 어떤 의복 이미지와 유사하게 지각되는지에 관한 답을 얻고자 한다.

### Ⅲ. 실증 연구 1: 이국적 패션 이미지 지각에 있어서의 성별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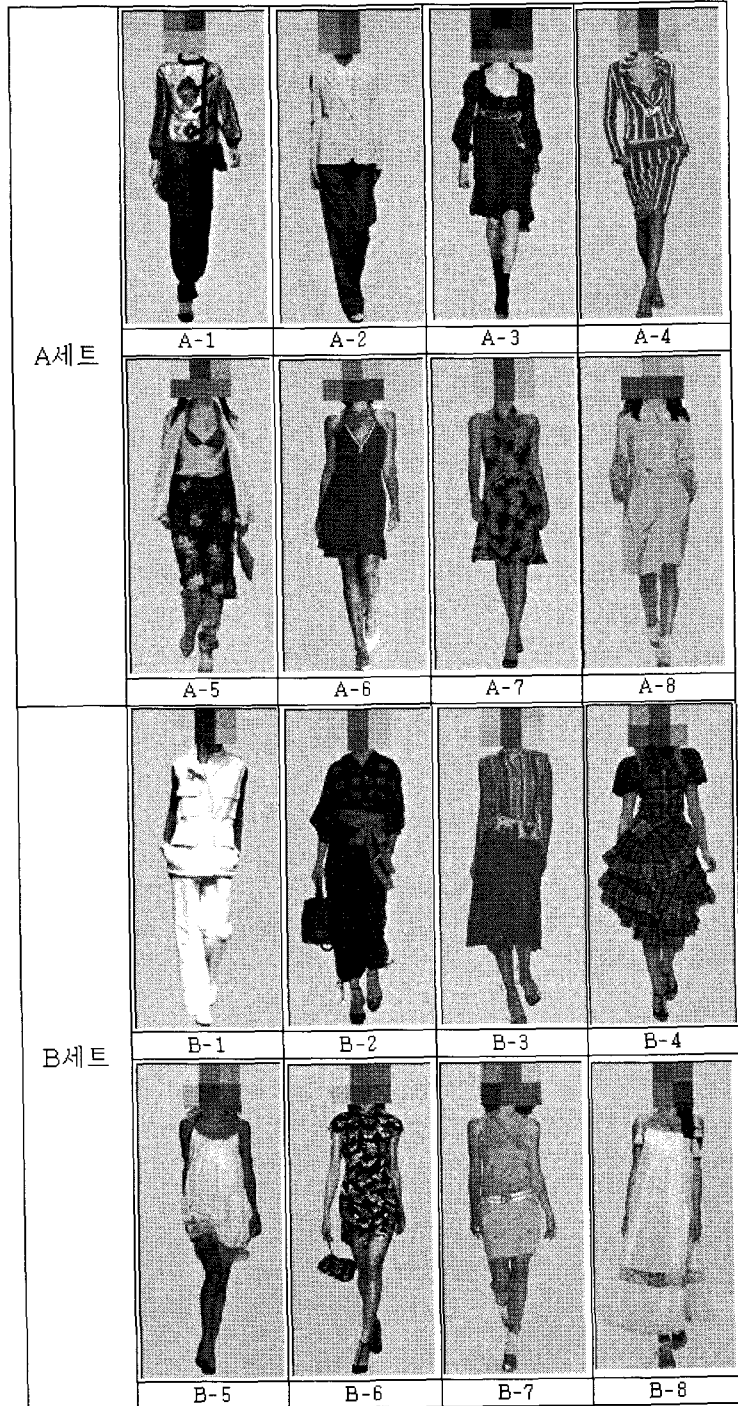
#### 1. 연구문제

성별에 따라 이국적 패션 이미지 지각에 차이가 있는지 밝힌다.

#### 2. 연구방법

##### 1) 자극물과 이미지 평가용어 선정

측정도구는 다양한 의복 이미지의 패션 사진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이국적이다'를 비롯한 여러 이미지 평가 용어의 지각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응답자들에게 광범위한 수준의 이국적인 이미지 지각을 유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패션 자극물을 추출하고자 하였다. 의복에 대한 이국적 이미지 지각을 측정하기 위한 자극물은 정인희, 이은영<sup>13)</sup>이 규명한 의복 이미지 평가차원을 기준으로 하여 선정하였는데, 이 분류에 따를 경우 폭넓은 의복 이미지를 포함하는 자극물을 추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자극물은 2001년에서 2006년까지의 컬렉션 모음집에서 모델이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전신사진으로 너무 극단적인 스타일을 제시하지 않은 것을 상호 중복되지 않도록 추출한 후(129개), 이들 사진을 패션전공자 3인이 남성적인가 여성적인가, 장식적인가 단순한가, 전원적인가 도회적인가의 기준을 근거로 함께 분류하였다. 분류 과정에서 3인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다음 합의하였다. 2x2x2의 총 8개 셀당 각 두 장씩의 사진을 선정하고자 의도하였으나, 해당하는 셀에 적합한 사진이 없는 경우가 있었으므로, 최종적으로 가급적 여러 셀을 포괄하도록 총 16매의 사진을 자극물로 선정하였다<sup>14)</sup>.



〈그림 1〉 자극물 세트

\* C와 D 세트는 A와 B 세트의 역순으로 구성됨

자극물에 대한 의복 이미지 평가용어로 먼저, '이국적이다'의 용어를 채택하였다. 그리고 정인희, 이은영<sup>15)</sup>에 의해 6개 의복 이미지 구성요인의 요인명으로 채택된 평가용어와 본 자극물 선정의 기준으로 사용된 이미지 평가차원 6개 용어를 포함하였다. 또한 복식 미학 연구에서 이국주의와 호환하여 사용되는 개념을 이미지 지각의 측면에서 비교하기 위해 '동양적이다', '민족적이다', '원시적이다'의 3개 용어를 추가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초조사에서 국가인지도가 높았던 국가의 이미지를 측정하기 위해 '한국적이다', '미국적이다', '일본적이다', '중국적이다'의 용어를 포함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유럽풍이다', '아시아풍이다', '아메리카풍이다', '아프리카풍이다'의 4개 대륙 이미지도 함께 측정하였다.

기초조사는 민족적 복식 관련 서적<sup>16)17)18)</sup>에서 민족복식을 가진 것으로 제시된 98개국을 대상으로 2005년 5월 30일~31일 양일간 남녀 대학생 각 30명에게 국가 인지도를 5단계 평정척도(전혀 모른다 - 이름만 들어 보았다 - 대략적인 위치까지 안다 - 대략적인 풍습까지 안다 - 매우 잘 안다)로 측정하여 이루어졌다. 그 결과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영국, 독일, 네덜란드, 러시아,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프랑스, 캐나다 순으로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적으로 대략적인 풍습까지 아는 범주에 속하는 국가는 한국, 미국, 일본, 중국이었다.

## 2) 질문지 구성과 자료 수집

자극물을 별도의 카드로 제시하고, 각 카드를 보면서 제시된 의복 이미지 평가용어들의 적합정도를 '매우 그렇다',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의 7단계 평정척도로 응답하도록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질문지에는 성별, 연령, 학력, 전공 등 인구통계 변수 문항도 포함되었다.

자극물은 모델에 의한 인상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였으며, 배경은 연하늘색으로 통일하였다. 보기 카드의 가로×세로 크기는 7cm×15cm로 하였다. 자극물로 선정된 16개 사진을 1인의 응답자가 모두 평가하

는 것은 응답 시간과 분량 상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었으므로, 8개 자극물로 구성된 A, B, C, D 중 한 세트에만 응답하도록 하였다. A와 B 세트는 <그림 1>에 제시한 바와 같다. 응답 시 자극물의 순서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서 C와 D 세트는 A와 B 자극물 제시 순서의 역순으로 구성하였다.

남녀의 비율을 균등하게 조사하는 데 용이한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표본으로 삼았으며, 표본추출법으로는 할당편의표본추출법을 사용하였다. 즉, 성별에 따라 남과 여, 학력에 따라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각각 1:1의 비율로 구성하였다. 성별과 학력에 따른 각 집단에는 70명씩 인원을 할당하여 총 표본은 280명이었다. 조사는 2005년 8월 23일부터 9월 3일에 걸쳐 대구·경북권의 2개 대학과 2개 고등학교에서 수행되었다. 청소년기에는 자기정체감이 형성되고<sup>19)</sup> 지적인 문제해결능력이 최고 수준에 달하며, 통찰력·판단력·사고력·상상력 등 모든 지적 능력이 풍부하므로<sup>20)</sup> 고등학생들의 응답도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조사 시 먼저 보기카드가 포함된 질문지를 배부하고 응답요령을 설명한 후 응답자가 직접 질문지 상에 응답을 기입한 후 회수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때 A, B, C, D 세트에 따른 회수 비율이 유사하게 되도록 보기 카드를 배부하였다. 최종 응답자의 연령 평균은 고등학생 남자 18세, 고등학생 여자 18세, 대학생 남자 23세, 대학생 여자 22세였다.

## 3) 분석

자료 분석에는 SPSSWIN 10.1.3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기술통계, 상관관계분석, t-검정, 다차원척도분석의 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분석된 자료 수는 <표 1>과 같다. 사진별 분석을 하는 경우에는 응답자 수와 같은 수의 분석 자료가 적용되었으나, 이미지 용어에 대한 분석에는 한 용어에 대해 1인당 8번씩의 응답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총 2,240개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 3. 결과

### 1) 자극물별 이국적 이미지 분석

자극물별 이국적 이미지 평가가 성별로 차이가 있

〈표 1〉 실증 연구 1의 분석에 사용된 자료 수

분석 대상		남	여	전체
사진	A-1 ~ A-8	72	67	139
	B-1 ~ B-8	68	73	141
	소 계	140	140	280
평가 용어		1,120	1,120	2,240

〈표 2〉 성별에 따른 자극물별 이국적 이미지 평가 점수

		A-1	A-2	A-3	A-4
평균 (표준편차)	남	3.89 (2.046)	4.19 (1.580)	5.14 (1.447)	4.90 (1.313)
	여	4.22 (1.841)	4.09 (1.525)	5.04 (1.248)	4.75 (1.396)
t-값 (유의수준)		-1.012 (.313)	.398 (.691)	.409 (.683)	.681 (.497)
		A-5	A-6	A-7	A-8
평균 (표준편차)	남	4.49 (1.611)	4.58 (1.518)	4.85 (1.318)	3.79 (1.502)
	여	4.28 (1.516)	4.39 (1.403)	4.76 (1.447)	4.01 (1.532)
t-값 (유의수준)		.785 (.434)	.760 (.449)	.381 (.704)	-.876 (.383)
		B-1	B-2	B-3	B-4
평균 (표준편차)	남	4.44 (1.480)	3.85 (2.153)	4.75 (1.530)	5.87 (1.505)
	여	4.25 (1.310)	3.70 (1.839)	4.85 (1.221)	5.52 (1.156)
t-값 (유의수준)		.828 (.409)	.459 (.647)	-.428 (.670)	1.542 (.125)
		B-5	B-6	B-7	B-8
평균 (표준편차)	남	5.62 (1.446)	4.18 (2.109)	4.43 (1.596)	5.01 (1.569)
	여	5.19 (1.421)	3.88 (1.943)	4.21 (1.291)	5.04 (1.419)
t-값 (유의수준)		1.764 (.080)	.878 (.381)	.907 (.366)	-.105 (.917)

는지 비교한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독립표본 t-검정 결과 자극물별 이국적 이미지 지각에 성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즉, 남성과 여성 모두 어떤 패션이 이국적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 유사하게 지각한다고 할 수 있다.

응답자들이 가장 이국적이라고 지각한 자극물은 B-4였고, 다음이 B-5와 A-3이었다. B-4는 겐조의 디자이너 안토니오 마라스가 2005-2006 가을/겨울 파리 컬렉션에 발표한 작품으로 타탄 체크의 랩스커트가 나타나는 영국풍의 의상이다<sup>21)</sup>. B-5는 클로에의 디자이너 피비 필로가 2005년 봄/여름 파리 컬렉션에 발표한 작품으로 광택이 있는 소재를 사용한 포멀한 감각의 드레스이다<sup>22)</sup>. A-3은 저스트 카발리의 로베르트 카발리가 2005-2006 가을/겨울 밀라노 컬렉션에 발표한 작품으로 러시아풍 퍼프 슬리브의 하이웨스트 베이비돌 드레스이다<sup>23)</sup>. 즉 응답자 남녀 모두 영국풍과 러시아풍이 느껴지는 민속풍 의상

이나 매우 서구적인 느낌이 강하고 노출이 많은 드레스의 자극물을 가장 이국적인 것으로 지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남녀 모두에게 이국적이지 않은 것으로 평가 받은 자극물은 B-2였는데, 이는 겐조의 안토니오 마라스 작품으로 2005년 봄/여름 파리 컬렉션에서 발표된 것이다. 컬렉션은 전반적으로 아프리카의 감성이 가미된 것이었으나<sup>24)</sup>, 이 의상에서는 동양적인 느낌이 강해 보인다.

이상에서 남녀 응답자들은 서구 국가의 민속적 색채가 강한 패션 혹은 보편화된 서구복식의 범주에 들기는 하지만 한국에서는 착용하기 힘든 노출 패션에 대해서 이국적인 것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동양적인 색채가 강해서 서구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국적인 범주에 들 수 있는 패션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국적이지 않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3〉 성별에 따른 이국적 이미지와 의복 이미지 구성요인과의 상관관계 비교

	남	여
품위있다	.089**	.185**
현대적이다	.190**	.186**
흔스럽다	-.110**	-.073*
활동적이다	-.035	-.083**
드레시하다	.205**	.227**
젊어보인다	.207**	.188**

\* p<0.05 \*\* p<0.01

〈표 4〉 성별에 따른 이국적 이미지와 의복 이미지 평가차원과의 상관관계 비교

	남	여
남성적이다	-.166**	-.162**
여성적이다	.219**	.260**
장식적이다	.084**	.122**
단순하다	-.057	-.088**
전원적이다	-.128**	-.019
도회적이다	.183**	.129**

\* p<0.05 \*\* p<0.01

〈표 5〉 성별에 따른 이국적 이미지와 유사 개념과의 상관관계 비교

	남	여
동양적이다	-.326**	-.269**
민족적이다	-.074*	-.058
원시적이다	-.092**	-.039

\* p<0.05 \*\* p<0.01

## 2) 이국적 이미지와 상관이 높은 이미지

이국적 이미지와 유사하게 지각되는 이미지를 규명하기 위해, 이미지 용어 유형별로 이국적 이미지와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에는 의복 이미지 구성요인과 이국적 이미지의 상관관계를 제시하였다. 남자 집단에서 이국적 이미지와 활동적 이미지와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을 뿐 모든 이미지 구성요인에서 남자와 여자 집단의 상관관계 경향은 동일하게 나타났다. 즉, 이국적 이미지는 성별에 상관없이 품위 있고 현대적이며 드레시하고 젊어보이지만 촌스럽거나 활동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지각되고 있었다.

〈표 4〉에는 의복 이미지 평가차원과 이국적 이미지와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단순한 이미지에서 남자 집단, 전원적 이미지에서 여자 집단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전반적인 경향은 두 집단 모두에서 동일하게 포착되었다. 즉, 이국적 이미지는 성별에 관계없이 남성적이기 보다는 여성적으로, 단순하기 보다는 장식적으로, 전원적이기 보다는 도회적으로 지각되었다. 한편 정인희, 이은영<sup>25)</sup>이 제시한 3개 평가차원에서의 각 축의 양극 행동사가 모두 상호 반대 방향의 상관 부호를 보임으로써 이 평가차원은 의복 이미지의 고유한 평가차원으로 타당함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표 5〉에는 이국주의와의 유사 개념과 이국적 이미지와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남자 집단의 경우 이국적 이미지라는 것은 동양적인 것도 아니고 민족적인 것도 아니고 원시적인 것도 아니라고 지각하고 있었으나, 여자 집단의 경우에는 동양적

<표 6> 성별에 따른 이국적 이미지와 대륙 이미지와의 상관관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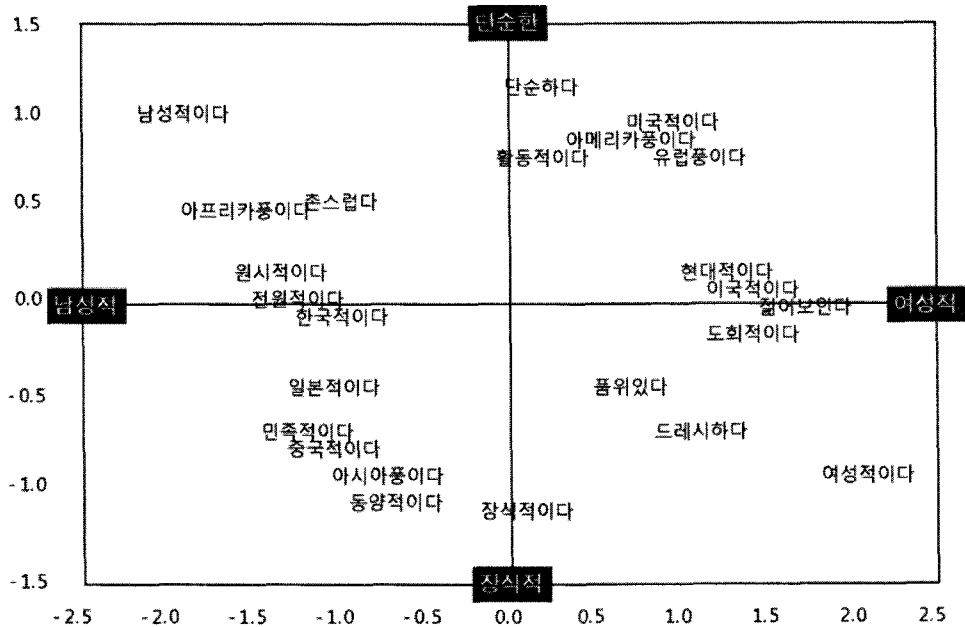
	남	여
유럽풍이다	.346**	.376**
아메리카풍이다	.267**	.305**
아시아풍이다	-.247**	-.200**
아프리카풍이다	.013	.024

\* p<0.05 \*\* p<0.01

<표 7> 성별에 따른 이국적 이미지와 국가 이미지와의 상관관계 비교

	남	여
한국적이다	-.235**	-.156**
미국적이다	.269**	.320**
일본적이다	-.165**	-.158**
중국적이다	-.193**	-.197**

\* p<0.05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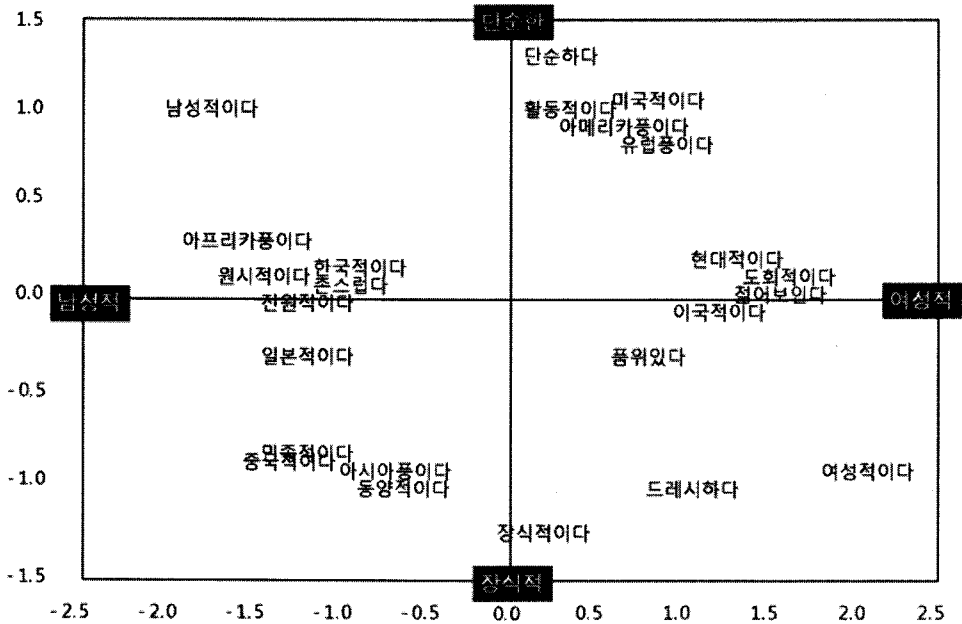
<그림 2> 남자 집단의 이미지 지각 공간

인 것이 아니라는 데에서만 유의함이 입증되었다. 두 집단 모두 일반적으로 이국주의의 유사개념으로 알려진 내용과 이국주의는 정적 상관이 없는 것으로 지각한다는 데에서는 일치하였다.

<표 6>에는 대륙별 이미지와 이국적 이미지의 상

관관계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남녀 두 집단에서 같은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국적 이미지가 강할수록 유럽풍이거나 아메리카풍이지만 아시아풍은 아니라고 지각되고 있었다. 이는 이국주의에 대한 한국인 일반의 확실한 지각구조를 보여주는 것으로, 앞서 기술





〈그림 3〉 여자 집단의 이미지 지각 공간

된 자극물에 대한 분석 결과를 지지해 주는 내용이다.

〈표 7〉에는 국가별 이미지와 이국적 이미지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남녀 두 집단에서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서, 이국적 이미지일수록 미국적이기는 하지만 한국적이거나 일본적이거나 중국적인 것은 아니라고 응답되었다. 본 국가별 보기에는 서구 국가로 미국만 포함되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만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난 것이다.

### 3) 다차원 공간에서의 이국적 이미지

모든 이미지 용어를 투입하여 다차원척도분석을 하였으며, 해석의 용이를 위해 2차원으로 그 결과를 얻었다. 남자 집단에 대한 결과에서 스트레스값은 0.150, RSQ는 90.8%였으며 다차원척도공간은 〈그림 2〉와 같았다. 1차원은 남성적-여성적으로, 2차원은 장식적-단순한으로 해석 가능하였다. 남성들의 지각 공간에서 이국적 이미지는 현대적이고 젊어보이며 도회적인 이미지와 가깝게 위치하고 있었으며, 1차원에서는 남성적이기보다 여성적인 이미지로 해석된다.

여자 집단에 대한 결과에서 스트레스값은 0.165,

RSQ는 88.8%였으며 다차원척도공간은 〈그림 3〉과 같았다. 역시 1차원은 남성적-여성적으로, 2차원은 장식적-단순한으로 해석 가능하였다. 여성들의 지각 공간에서도 남성들의 지각 공간과 유사하게 이국적 이미지는 젊어보이고 도회적이며 현대적이고 품위있는 이미지와 가깝게 위치하고 있었으며, 1차원에서는 남성적이기보다 여성적인 이미지로 해석된다.

## IV. 실증 연구 2: 이국적 패션 이미지 지각에 있어서의 교육 효과

### 1. 연구문제

교육 여부에 따라 이국적 패션 이미지 지각에 차이가 있는지 밝힌다.

### 2. 연구방법

표본 추출을 제외한 모든 연구 방법은 실증 연구 1과 같다. 표본은 패션 전공자와 비전공자의 차이를 볼 수 있는 대학생으로 선정하였다. 패션 전공자는 여성

〈표 8〉 실증 연구 2의 분석에 사용된 자료 수

분석 대상		패션 전공자	패션 비전공자	전체
사진	A-1 ~ A-8	33	33	66
	B-1 ~ B-8	37	37	74
	소 계	70	70	140
평가 용어		560	560	1,120

〈표 9〉 패션 전공 여부에 따른 자극물별 이국적 이미지 평가 점수 비교

		A-1	A-2	A-3	A-4
평균 (표준편차)	전공자	3.91 (2.097)	3.52 (1.603)	4.39 (1.657)	4.12 (1.799)
	비전공자	4.36 (1.800)	4.12 (1.709)	5.06 (1.088)	4.58 (1.640)
t-값 (유의수준)		.945 (.348)	1.486 (.142)	1.932 (.058)	1.073 (.287)
		A-5	A-6	A-7	A-8
평균 (표준편차)	전공자	4.09 (1.508)	3.52 (1.603)	5.09 (1.284)	3.73 (1.485)
	비전공자	3.73 (1.567)	4.36 (1.517)	4.42 (1.542)	3.91 (1.665)
t-값 (유의수준)		-.961 (.340)	2.208 (.031)*	-1.909 (.061)	.468 (.641)
		B-1	B-2	B-3	B-4
평균 (표준편차)	전공자	3.57 (1.425)	3.95 (1.810)	3.81 (1.450)	5.24 (1.321)
	비전공자	4.24 (1.188)	3.89 (1.955)	4.73 (1.367)	5.22 (1.134)
t-값 (유의수준)		2.215 (.030)*	-.123 (.902)	2.805 (.006)**	-.094 (.925)
		B-5	B-6	B-7	B-8
평균 (표준편차)	전공자	4.76 (1.383)	4.05 (1.943)	3.30 (1.331)	5.16 (1.167)
	비전공자	4.65 (1.438)	4.14 (2.002)	3.95 (1.373)	4.54 (1.445)
t-값 (유의수준)		-.330 (.743)	.177 (.860)	2.063 (.043)*	-2.036 (.045)*

\* p<0.05 \*\* p<0.01

이 대다수라는 특징을 반영하여 성별은 여성으로 통일하였다. 역시 할당편의표본추출법을 사용하여 패션 전공자와 패션 비전공자를 1:1로 각 70명씩 조사하였다. 패션 비전공자 표본은 실증 연구 1의 여자 대학생 표본과 동일하다. 조사는 2005년 8월 23일부터 9월 7일에 걸쳐 수행되었으며, 대구·경북권의 3개 대학에서 이루어졌다. 최종 응답자의 연령 평균은 두 집단 모두 22세였다. 분석된 자료 수는 〈표 8〉과 같다. 사진별 분석을 하는 경우에는 응답자 수와 같은 수의 분석 자료가 적용되었으나, 이미지 용어에 대한 분석에는 한 용어에 대해 1인당 8번씩의 응답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므로 총 1,120개의 응답이 분석 대상이었다.

### 3. 결과

#### 1) 자극물별 이국적 이미지 분석

자극물별 이국적 이미지 평가가 패션 전공 여부에 따

라 차이가 있는지 비교한 결과를 〈표 9〉에 제시하였다. 독립표본 t-검정 결과 p<0.01 수준에서 한 개, p<0.05 수준에서 네 개의 자극물에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즉 대부분의 자극물에서는 이국적인가 이국적이지 않은가에 대한 지각이 유사한 경향으로 나타났으나, A-6, B-1, B-3, B-7, B-8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A-6과 B-1, B-3의 경우 전공자는 이국적이라고 지각하지 않은 반면 비전공자만 이국적으로 지각한 자극물이다. A-6은 2004년 봄/여름 시즌을 위한 라코스테의 빨간색 브이넥 스포츠웨어로서<sup>26)</sup> 비전공자가 이국적으로 지각하는 이유는 실증 연구 1에서와 마찬가지로 과감한 노출 때문일 것으로 예측된다. B-1은 2002년 봄/여름 파리 컬렉션에서 선보인 에르메스 디자인어 마르틴 마르지엘라의 작품으로 패치 포켓을 단 화이트 재킷의 캐주얼한 아이템이다<sup>27)</sup>. 매우 서구적인 느낌이 비전공자들에게는 이국적인 느낌을 불러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B-3은 2002년 파리 컬렉션에

<표 10> 패션 전공 여부에 따른 이국적 이미지와 의복 이미지 구성요인과의 상관관계 비교

	패션 전공자	패션 비전공자
품위있다	.134**	.201**
현대적이다	.002	.212**
촌스럽다	.009	-.035
활동적이다	-.061	-.052
드레시하다	.245**	.188**
짤해보인다	.026	.166**

\* p<0.05 \*\* p<0.01

<표 11> 패션 전공 여부에 따른 이국적 이미지와 의복 이미지 평가차원과의 상관관계 비교

	패션 전공자	패션 비전공자
남성적이다	-.145**	-.117**
여성적이다	.225**	.219**
장식적이다	.252**	.119**
단순하다	-.120**	-.088*
전원적이다	.097**	-.024
도회적이다	-.068	.151**

\* p<0.05 \*\* p<0.01

소개된 까샤렐의 디자이너 클레멘트와 리베로 작품으로<sup>28)</sup>, 의복 스타일 측면에서는 평범한 스커트와 블라우스지만 사용된 색채의 화려함으로 인해 비전공자들은 이국적 이미지를 느낀 것으로 판단된다.

B-7은 전공자가 비전공자보다 더 이국적이지 않다고 지각한 자극물이며, B-8은 전공자가 비전공자보다 더 이국적이라고 지각한 자극물이다. B-7은 2004년 봄/여름을 위한 라코스테의 민트 그린 컬러 셔츠와 스포티한 느낌의 스커트이다<sup>29)</sup>. B-8은 2004년 봄/여름 시즌을 위한 파리 컬렉션에 지방시 디자이너 줄리앙 맥도널드가 발표한 작품으로 주름 가공된 면을 사용하여 로맨틱하면서도 히피적인 감성이 묻어나는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으며<sup>30)</sup> 그리스풍 의상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그러므로 전공자는 비전공자에 비해 민족적 이미지가 연상되는 스타일을 더 이국적이라고 느끼고, 현대적이고 스포티한 스타일을 더 이국적이지 않게 지각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응답자들이 가장 이국적이라고 지각한 자극물은 B-4였고, 다음은 B-8로 나타났다. 그리고 두 집단 모두에서 이국적이지 않다고 지각한 자극물은 B-7, A-8, 그리고 B-2였다. A-8은 2004년 봄/여름을

위한 라코스테의 레인코트로서<sup>31)</sup> 두 집단 모두에게 이국적인 느낌을 주지 않았다. 실증 연구 1에서와 마찬가지로 B-4는 이국적인 것으로, B-2는 이국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B-7과 A-8은 전공자가 더 이국적이지 않게 지각하였지만, 비전공자도 이국적인 느낌은 없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B-8은 전공자가 더 이국적인 것으로 지각하였으나 비전공자도 매우 이국적인 것으로 평가하였다.

## 2) 이국적 이미지와 상관이 높은 이미지

<표 10>에는 의복 이미지 구성요인과 이국적 이미지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전공 여부에 따라서 두 집단은 현대적 이미지와 짤해보이는 이미지에서 차이가 났다. 즉, 패션 비전공자는 이국적 이미지일수록 현대적이고 짤해보인다고 지각하였지만 전공자는 그렇게 지각하지 않고 있었다. 두 집단 모두 이국적 이미지를 품위있고 드레시한 이미지로 지각한다는 측면에서는 일치를 보였다.

<표 11>에는 의복 이미지 평가차원과 이국적 이미지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두 집단에서 차이를 보인 것은 전원적 이미지와 도회적 이미지인

<표 12> 패션 전공 여부에 따른 이국적 이미지와 유사 개념과의 상관관계 비교

	패션 전공자	패션 비전공자
동양적이다	.107*	-.202**
민족적이다	.188**	-.039
원시적이다	.183**	-.036

\* p<0.05 \*\* p<0.01

<표 13> 패션 전공 여부에 따른 이국적 이미지와 대륙 이미지와의 상관관계 비교

	패션 전공자	패션 비전공자
유럽풍이다	.371**	.318**
아메리카풍이다	.130**	.292**
아시아풍이다	.079	-.110**
아프리카풍이다	.150**	.037

\* p<0.05 \*\* p<0.01

<표 14> 패션 전공 여부에 따른 이국적 이미지와 국가 이미지와의 상관관계 비교

	패션 전공자	패션 비전공자
한국적이다	-.003	-.136**
미국적이다	.127**	.268**
일본적이다	.058	-.123**
중국적이다	.040	-.165**

\* p<0.05 \*\* p<0.01

데, 전공자들은 이국적 이미지일수록 전원적인 것이라고 지각하고 있는 반면, 비전공자는 이국적 이미지일수록 도회적이라고 지각하고 있었다. '남성적-여성적' 및 '장식적-단순한' 이미지 차원에서의 지각 경향은 두 집단이 동일하였다.

<표 12>에는 이국주의 유사개념과 이국적 이미지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패션 전공자와 비전공자의 지각에는 완전한 차이가 나타나서, 전공자는 이국적일수록 동양적이고 민족적이고 원시적인 것으로 지각한 반면, 비전공자는 이국적일수록 동양적이지 않으며, 이국적 이미지가 민족적이거나 원시적인 것과는 무관한 것으로 지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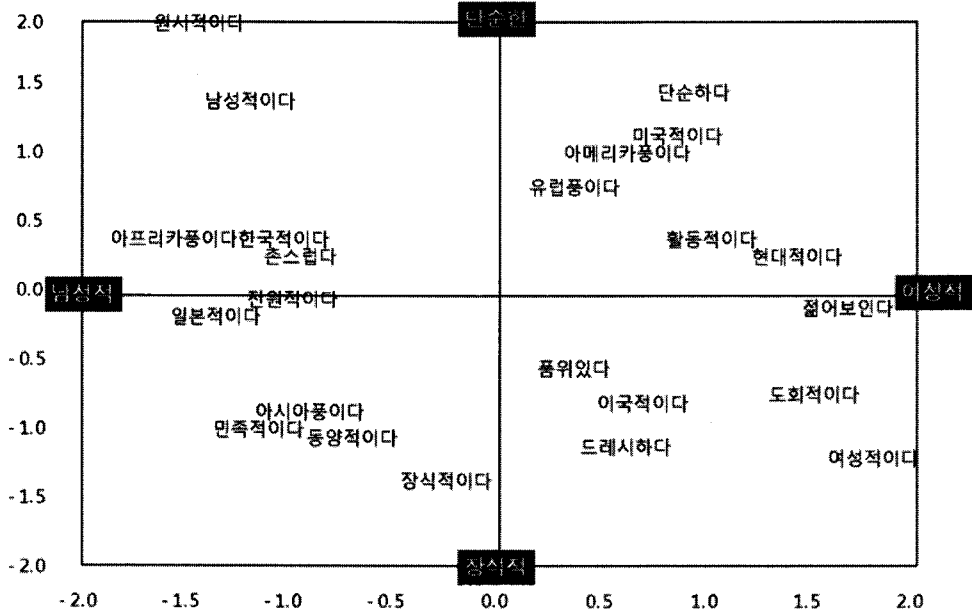
<표 13>에는 대륙별 이미지와 이국적 이미지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두 집단 모두 이국적 이미지와 유럽풍 이미지 및 아메리카풍 이미지의 정적 상관관계를 지각하고 있었으나, 아시아풍과 아프리카풍에 대한 지각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전공자

집단은 아프리카풍을 이국적인 것으로, 아시아풍은 이국적인 이미지와 무관한 것으로 응답하였지만, 비전공자는 아프리카풍이 이국적 이미지와 무관한 반면 아시아풍은 이국적 이미지와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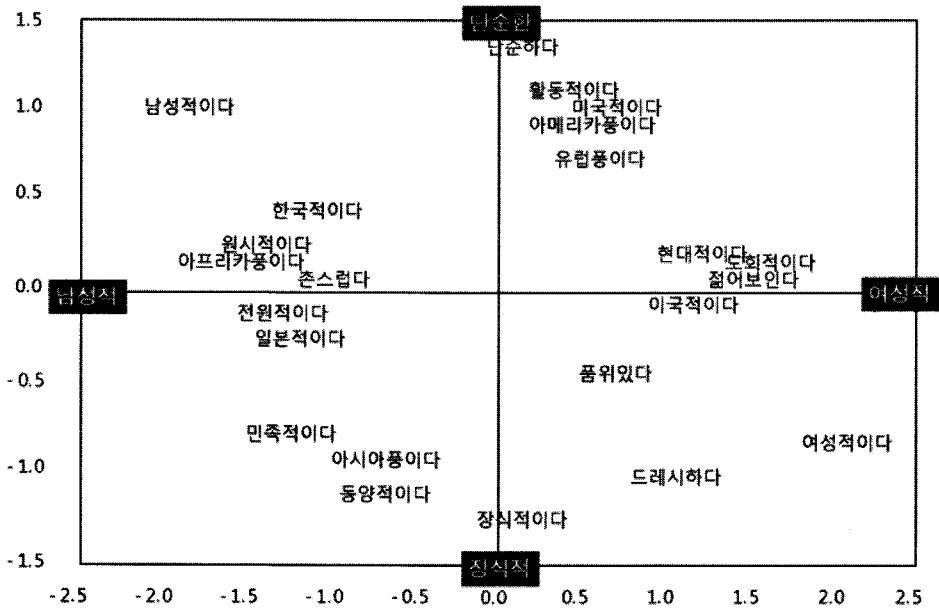
<표 14>에는 국가별 이미지와 이국적 이미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두 집단 모두 미국적인 이미지를 이국적인 것으로 지각하고 있었으나 비전공자는 한국적이거나 일본적이거나 중국적인 것은 이국적인 것이 아닌 것으로, 전공자는 이들 국가 이미지가 이국적인 것과 무관한 것으로 지각하고 있는 데서 차이를 보였다.

### 3) 다차원 공간에서의 이국적 이미지

이상의 모든 이미지 용어를 투입하여 다차원척도 분석을 하였으며, 그 결과는 해석의 용이를 위해 2차원으로 얻었다. 패션 전공자 집단에 대한 결과에서



〈그림 4〉 전공자 집단의 이미지 지각 공간



〈그림 5〉 비전공자 집단의 이미지 지각 공간

스트레스값은 0.167, RSQ는 86.8%였으며 다차원척도 공간은 〈그림 4〉와 같았다. 1차원은 남성적-여성적으

로, 2차원은 장식적-단순함으로 해석 가능하였다. 전공자들의 공간에서 이국적 이미지는 품위있고 드레시한

이미지와 가깝게 위치하고 있었으며, 1차원과 2차원에서 각각 여성적이고 장식적인 이미지로 해석된다.

패션 비전공자 집단에 대한 결과에서 스트레스값은 0.170, RSQ는 87.5%로 전공자에 대한 정확도의 수준과 유사하였다. 다차원척도공간은 <그림 5>와 같으며, 역시 1차원은 남성적-여성적으로, 2차원은 장식적-단순한으로 해석 가능하였다. 비전공자들의 공간에서 이국적 이미지는 젊어보이고 현대적이며 도회적인 이미지와 가깝게 위치하고 있었고, 1차원에서는 남성적이기보다 여성적인 이미지로 해석된다.

## V. 결론

현대패션에서의 이국주의는 창조의 한계 특히 서양복식에서의 한계를 느끼는 현대 디자이너들에게 새로운 모티브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이국적 스타일의 룩을 생산해내면서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매김해왔다. 그러나 이국주의는 지금까지 서구 중심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었으며, 따라서 이국주의라는 것은 서구의 입장에서 '타자'인 동양과 깊게 관계되어 왔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국주의는 오리엔탈리즘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실증 연구를 바탕으로 패션에서의 이국적 이미지에 대한 한국인의 지각 구조를 규명하고, 이국주의가 상대적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는 실증적 자료를 제시하였다.

성별에 따른 이국적 이미지 지각 구조를 규명한 결과에서는 성별에 따른 뚜렷한 차이를 찾을 수 없어 한국인의 이국적 이미지 지각 구조는 성별과 무관하게 동질적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패션 전공자와 비전공자 사이에서는 상당한 지각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 효과 분석에서 나타난 남녀의 결과가 교육 효과 분석에서 나타난 비전공자 집단의 결과와 거의 일치하므로, 전공자와 비전공자 집단의 차이를 중심으로 성별 결과를 추가해 주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인 한국인은 의복 이미지 구성 요인에서 품위있고 드레시한 이미지와 함께 현대적이고 젊어보이는 이미지도 이국적 이미지와 유의한 정적 상관이라고 지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남성적-여성적 의복

이미지 평가차원에서는 보다 여성적인 이미지가, 장식적-단순한 평가차원에서는 보다 장식적인 이미지가, 도회적-전원적인 평가차원에서는 보다 도회적인 이미지가 이국적인 이미지와 관련된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패션 전공자들은 이국적인 이미지가 현대적이거나 젊어보이는 이미지와는 관계가 없고, 여성적이고 장식적이기는 하지만 도회적이기보다는 전원적인 이미지인 것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이국주의 유사 개념에 대해서, 일반적인 한국인은 동양적일수록 이국적이지 않은 것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패션 전공자들은 동양적일수록, 민족적일수록, 그리고 원시적일수록 이국적이라고 지각하여, 서구에서 유래된 현대 패션의 관점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특히 일반 남자 집단은 동양적일수록, 민족적일수록, 그리고 원시적일수록 이국적이지 않다고 지각하고 있어서, 패션을 전공한 여자 집단과는 극명한 반대의 지각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전공자와 일반인 모두 유럽풍이고 아메리카풍인 것이 이국적이라는 데는 일치하였다. 단, 일반인은 이러한 경향만 보이는 데 반해 전공자들은 학습 내용을 토대로 하여 아프리카풍 또한 이국적인 이미지를 유발하는 것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보편적인 인간으로서의 이국적 이미지에 대한 지각구조, 한국인의 지각구조, 패션 전공자의 지각구조가 독립적으로 존재함을 예측할 수 있다. 보편적인 지각에서 이국적 패션 이미지는 품위있고 드레시하며, 여성적인 것일 수 있다. 반면 아메리카풍과 유럽풍에서 이국적 이미지를 지각하는 것은 한국인 또는 비서구인으로서의 지각일 것이다. 그리고 패션 전공자들은 이국적 패션 이미지를 전원적 이미지, 동양적 이미지, 민족적 이미지, 원시적 이미지, 아프리카풍과 연결시키는 경향을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 한국인과 패션 전공자들의 차이를 통해, 비록 패션 분야에서는 학문 유래 특성상 '이국적 이미지'에 대한 서구 중심의 관점이 보급되고 있으나 일반인들은 오히려 서구 양식을 이국적이라고 지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의 후속 연구를 통해 한국인의 이국적 이미지에 대한 지각 특성이 한국인 고유의 특성

인지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 특성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인간 보편적인 지각 구조로 예측한 부분은 향후 아시아와 서구 여러 국가에서의 추가적인 연구로 검증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1) 크레이크, 제니퍼 (1993). *The Face of Fashion*. 정인희, 함연자, 정수진, 김경원 역 (2001). *패션의 얼굴*. 서울: 푸른솔, p. 50.
- 2)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 retrieved 2008, July 20, from <http://www.korean.go.kr>
- 3) 크레이크. *앞의 책*, p. 50.
- 4) 김수경 (2003). 이국취향의 요인과 현대패션에 나타난 이국취향. *복식문화연구*, 11(3), p. 387.
- 5) 'exoticism'은 이국주의 외에도 이국취향, 이국정취, 이국정서, 이국취미 등으로 번역되어 사용된다.
- 6) 송명진 (1991). *현대 서양복식에 나타난 이국취향(Exoticism)에 관한 연구 -1980년대 중반~1991년의 서양복식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25.
- 7) 정인희, 이은영 (1999). 의복 착용 동기와 유행 현상의 상호작용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3(1), p. 130.
- 8) 크레이크. *앞의 책*, p. 49.
- 9) Kawamura, Y. (2004). The Japanese Revolution in Paris Fashion. *Fashion Theory*, 8(2), p. 196.
- 10) 김수경. *앞의 책*, p. 388.
- 11) 권유진 (1998). *오리엔탈리즘의 패션체계*.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18.
- 12) 본 연구에서는 'ethnic'을 민족적이라는 용어로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 13) 정인희, 이은영 (1992). 의복 이미지의 구성요인과 평가차원에 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6(4), pp. 379-391.
- 14) 최종 선정된 사진의 출처는 2004 Spring & Summer Collection Paris/Milan(동아TV 패션뷰티); 2005 Spring & Summer Collection Paris/Milan(동아TV 패션뷰티); 2002 Spring & Summer Collections Paris(패션인사이트); 2002 Spring & Summer Collections Paris/Milan/Seoul(패션인사이트); 2004 Spring & Summer Collections Paris/Milan/New York/London(패션인사이트).
- 15) 정인희, 이은영 (1992). *앞의 책*.
- 16) 홍나영, 신혜성, 최지희 (2004). *아시아 전통복식*. 서울: 교문사.
- 17) Harold, R., and Legg, P. (1999). *Folk Costumes of The World*. New York: Sterling Pub Co. Inc.
- 18) Kennett, F. (1995). *Ethnic Dress*. New York: Facts On File.
- 19) 정옥분 (1998). *청년발달의 이해*. 서울: 학지사, p. 156.
- 20) 권이중, 김용구 (2006). *청소년이해론*. 서울: 교육과학사, pp. 23-4.
- 21) 동아TV 패션뷰티 (2005). *05-06 Fall & Winter Paris/Milan Collection*. p. 142.
- 22) 동아TV 패션뷰티 (2004). *2005 Spring & Summer Paris/Milan Collection*, p. 84.
- 23) 동아TV 패션뷰티 (2005). *앞의 책*, p. 310.
- 24) 동아TV 패션뷰티 (2004). *앞의 책*, p. 126.
- 25) 정인희, 이은영 (1992). *앞의 책*.
- 26) 패션인사이트 (2004). *Fashion Insight Collections -2004 Spring Summer Best Collections : Paris, Milan, New York, London-*. InsightBooks, pp. 90-91.
- 27) 패션인사이트 (2001). *Fashion Insight Collections -2002 Spring & Summer : Paris-*. InsightBooks, p. 304.
- 28) 패션인사이트 (2001). *앞의 책*, p. 326.
- 29) 패션인사이트 (2004). *앞의 책*, p. 105.
- 30) 동아TV 패션뷰티 (2003). *2004 Spring & Summer Paris/Milano Collection*, p. 90.
- 31) 패션인사이트 (2004). *앞의 책*, p. 153.